

중국대학생의 주관적 평가를 이용한 동북아 주요 도시의 경쟁력 평가 연구

서운석* · 박인성**

Comparison of Urban Competitive Power by Chinese University Students' Subjective Evaluation

Woon-Seok Suh* · In-Sung Park**

요약 : 이 글은 도시경쟁력을 분석하는 데 있어 평가자의 주관적 인식이 중요하다는 판단 아래 중국 대학생의 주관적 평가를 이용해 동북아 주요 도시들의 도시경쟁력을 분석한다. 본 연구의 대상인 동북아 주요 도시들에 대한 인식과 평가 주체는 중국의 명문대학인 중국인민대학, 칭화대학, 베이징대학의 학부와 대학원에 재학 중인 학생들이다. 본 연구의 대상 도시는 서울, 베이징, 상하이, 홍콩, 도쿄, 평양 등 6개 도시이다. 본 연구에서의 도시경쟁력 구성요인은 기업을 중심으로 하는 경제여건에 관한 인식, 사람을 중심으로 하는 삶의 질·시민의식에 관한 인식, 도시의 자연·문화 환경에 관련한 인식 등 네 가지 요소로 유형화하였다. 도시경쟁력을 구성하는 요인들 간에 가중치를 적용하여 100점 만점으로 평가한 동북아 주요 도시들 간의 주관적 인식에 의한 도시경쟁력 종합 평점은 홍콩(81.31), 상하이(78.75), 서울(78.38), 도쿄(75.86), 베이징(75.20), 평양(51.30)의 순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의 결과 서울은 한류 등을 이용한 도시마케팅 노력에 따라 주관적 평가에서 충분한 도시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으리라는 시사점을 준다.

주제어 : 도시경쟁력, 동북아 주요도시, 주관적 평가, 중국대학생

ABSTRACT :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valuate the urban competitive power by subjective evaluation among East Asia's major cities : Seoul, Beijing, Shanghai, Hongkong, Tokyo and Pyongyang. The evaluation consists of four major criteria. The evaluation score for 6 city in each of 4 criteria is obtained by averaging the scores in each criterion from 12 items. Among these 4 criteria, we assign the weights of 36.33% to the condition of economic, 23.43% to living quality, 18.06% to the level of citizen and 22.16% to the condition of environment. The object of this survey is 461 students of 3 major Universities in China(Peking University, Tsinghua University and Renmin University of China). The final gross urban competitive scores are Seoul 78.38, Beijing 75.20, Shanghai 78.75, Hongkong 81.31, Tokyo 75.86 and Pyongyang 51.30. Hongkong shows the highest score. Seoul is the third.

Key Words : competition between cities, evaluation of the urban competitive power, East Asia's major cities, subjective evaluation

* 中國人民大學 행정관리학과 박사연구생(Ph.D. Candidate, Department of Public Administration, Renmin University of China)

** 浙江大學 토지관리학과 교수(Professor, Department of Land Management, Zhejiang University, China)

I. 서론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이 글의 목적은 동북아 주요 도시들의 도시 경쟁력에 대한 조사와 분석이며 주요 관심은 “중국 대학생들의 주관적 인식은 동북아 주요 도시에 대한 이미지 형성 및 경쟁력 판단과 어떤 영향 관계에 있는가?” 라는 질문에 대한 대 답을 탐구하는 데 있다.

세계화와 국제경쟁이 가속화되는 추세 속에 구체적 경쟁의 주체인 지역중심지로서 도시의 역할과 도시 간 경쟁력 차이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이 같은 관심은 투자유치자의 입장에서 투자자에 대한 관심과 투자자의 입장에서 소비자나 시장에 대한 관심으로 구분할 수 있다. 첫째, 투자유치자의 입장은 지속적인 경제 성장에 따라 자본축적과 해외시장 개척이 시작되고 있는 중국 자본을 유치한다는 차원에서 의 관심이다. 둘째, 투자자 입장에서의 관심은 중국 내수시장에 우리 상품을 팔기 위하여 소비자인 중국 국민들의 소비취향에 영향을 미치는 우리나라 및 우리 도시이미지의 실상을 파악하기 위한 관심이다. 본 연구에서는 상기한 두 가지 측면과 연계하여 중국의 대학생 들을 대상으로 도시이미지 형성에 영향을 주는 주관적 인식 및 판단 실태를 조사·분석하고자 한다.

도시 경쟁력 평가와 관련한 본 연구의 관심은 이성에 바탕을 둔 객관적 지표가 아닌 감성에 바탕을 둔 주관적 판단과 개인적 정서이다. 주관적 평가를 중시하는 이유는 대상 도시의

경쟁력 평가와 관련하여 그 도시에 투자하려는 투자자들이 지역을 선정하려 할 때 해당 도시의 객관적 지표 외에 투자자들의 주관적 평가가 일정 부분 작용할 것이므로 이 같은 주관적 평가를 계량화하고 평가하기 위한 시도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이성과 감성의 근본적인 차이점을 설명하는 말로서 “이성은 결론을 낳는 데 반해 감성은 행동을 낳는다”는 말이 있다. 상품을 구매할 때에도 그렇다. 처음에는 제품의 기능은 뭔지, 왜 이 제품을 선택해야 하는지 합리적인 이유를 찾는다. 하지만 결국 결정적 선택은 감성에 좌우되는 경우가 많다(양준희, 2005). 이 같은 주장은 도시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전략에서도 매우 유효한 가정이 될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최근에 주목되는 현상이 중국 지식인이나 일반시민들이 과거사에 대한 태도 등을 이유로 일본에 대한 혐오감을 종종 일본 상품 불매운동으로 연결시키고 있는 경우이다. 이와 같은 감정적이고 정서적인 부분이 기업의 투자나 입지 선정에도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이라는 점을 확인하는 것도 이 연구의 주요 관심이자 목적이다.

2. 연구의 방법 및 의의

본 연구는 가까운 장래에 중국사회의 주류 집단으로 성장할 가능성이 큰 엘리트 대학생들이 동북아 역내 주요 도시들 즉, 서울, 베이징, 상하이, 홍콩, 도쿄, 평양에 대해 가지고 있는 주관적 인식 실태를 설문조사를 통하여 조사·분석하고자 한다.

본 연구의 대상인 동북아 주요 도시들에 대

한 인식과 평가 주체는 중국의 명문대학인 베이징의 중국인민대학, 청화대학, 베이징대학의 학부와 대학원에 재학중인 학생들이다. 투자 및 소비와 관련한 개인적·정책적 차원에서 정책결정의 주체가 될 중국의 명문대학 학생들이 동북아 주요 도시들의 경쟁력에 대하여 갖고 있는 이미지와 그것이 각 도시의 경쟁력 평가와 판단에 어떻게 영향을 미칠 것인가? 하는 점이 본 연구의 주요 내용 범위이다.

도시마케팅은 세계경제의 역풍 속에서 도시가 살아남기 위한 전략으로서, 도시가 보유한 유·무형의 영역자산이나 장소자산(territorial assets or place assets)을 상품화하고 이를 대내외적으로 마케팅함으로써 도시정체성을 가꾸고 나아가 그로부터 경제적 이익을 얻으려는 일련의 활동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도시마케팅은 최근 급속한 정보화 추세와 함께 도시정부들이 경쟁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각종 도시정보시스템의 개발에서도 확연하게 드러나고 있다(김선기, 2003: 303). 각각의 도시들이 나름대로의 개성과 특성 그리고 경쟁력 있는 도시를 만들기 위한 작업이 도시정체성 확립과 도시이미지 제고 작업이다. 도시정체성과 이미지의 차별화 과정 중에서 주관적 인식과 판단은 매우 중요한 위치를 점한다. 왜냐하면 사람은 결국 이미지에 따라 영향을 받고 행동하기 때문이다.¹⁾ 따라서 도시마케팅에서 잠재적 고객인 중국의 대학생들이 동북아의 도시

시스템 내에서 서울의 위치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으며, 앞으로 어떤 정책을 통해 이러한 인식을 활용할 것인가? 하는 문제가 주요 과제로 제기된다.

본 연구는 우리 도시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대(對) 중국 도시마케팅 전략 수립에 매우 유용한 함의를 제공해 줄 것이다.

II. 도시경쟁력에 대한 이론과 선행연구

1. 도시경쟁력의 대두 배경 및 개념

도시의 생존과 번영을 보장하기 위해 중요한 것은 경쟁에서 승리하는 일이다. 승리한 도시들은 고용창출과 경제성장을 향유할 수 있는 반면, 그렇지 못한 도시들은 실업과 경제침체의 고통을 겪어야 한다. 또 한 때 성장을 구가하던 도시라도 부단히 개혁하면서 노력하지 않으면 다시 쇠퇴의 길로 접어들 수 밖에 없다. 자본의 지구적 이동이 극대화되고 있는 세계화의 진전에 따라 경쟁의 패러다임이 국가와 국가와의 경쟁에서 도시와 도시 간의 경쟁으로 변화하고 있다(김현호, 2003: 78). 지구적 차원에서의 고도의 이동성은 공간적 거리가 더 이상 국가간 또는 도시간 경제활동상의 제약요인이나 보호 장벽이 되지 못하게 하고 전면적인 경쟁에 노출시키고 있다. 이 같은 상황 속에서 지구촌의 거의 모든 지역들은 경제활

1) 도시경쟁력을 평가하는 데 있어 주관적 인식이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연구로서, 국가의 이미지와 제품의 이미지 사이에는 긍정적인 상관관계가 존재하며, 자국 제품에 비해 품질평가에 대한 정보가 부족한 외국제품의 경우 제조국 정보와 같은 외재적 정보단서(extrinsic information cues)가 제품평가에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된다는 연구가 있다(Hong and Wyer, 1989). 이 같은 원산지 효과(country of origin effect)는 주관적 인식에 의한 국가와 도시이미지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

동을 끌어들이기 위한 경쟁에 나서고 있고, 한국의 크고 작은 각급 지방정부들도 지역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다양한 전략을 구사하고 있다.

한편, 도시간 경쟁규칙의 주된 양상이 경제비용 중심에서 각 도시의 문화 등 특수요인으로 이동하고 있다. 과거에는 도시경쟁이 주로 토지나 부존자원, 교통비 등 규모 및 비용 등에 바탕을 두고 있었으나 현재는 특정 도시만이 제공해 줄 수 있는 독특한 요인에 기반하고 있다.

도시경쟁력의 위상은 기업가적 정부로의 변화에 의해 두드러진다. 기업가적 정부로의 변화는 세계화의 도래에 따라 도시정부가 경제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성장을 도모하려는 노력이다. 경제활동이 국가를 뛰어넘어 도시와 직접 대면하게 되고 국가의 역할이 제한되는 상황에서의 불가피한 선택이다. 기업가적 정부는 세계적으로 활동하는 경제주체와 대면하게 되면서 도시의 생존과 발전을 위한 도시정부의 책임이 증가하게 되었다.

이런 상황 변화 속에서 도시의 생존을 결정하는 요인 중 하나로 경쟁력 개념이 두드러지고 있다. 우선 가장 먼저 나타난 개념인 국가경쟁력을 보면, 이 개념은 1980년대 미국의 경제 불황기 시절에 그 원인을 탐구하는 과정에서 처음 제기되었다. 1984년 레이건 대통령이 임명한 국가경쟁력위원회는 국가경쟁력을 “일국의 생산이 국제시장에서 제품과 서비스 기준을 달성하는 동시에 그 국민이 지속가능한 방식으로 개선되는 생활수준을 누리게 하는 것”이라고 정의하였다. 이 외에 국가경쟁력에

대한 주요 개념을 소개하면, “영토 내에서 활동 중인 기업들에게 국내적, 세계적 경쟁력을 유지하게 해 주는 환경을 제공해 주는 국가의 능력”(국제경영개발연구원(IMD)), “높은 수준의 1인당 GDP 성장률을 유지하도록 하는 국가의 능력으로, 중기적으로는 높은 경제성장률을 지지해 주는 제도와 일련의 경제정책시스템”(세계경제포럼(WEF)), “국부 창조 능력 일 뿐만 아니라 투자, 생활, 발전에 유리한 환경조성”(타이완 국가과학위원회) 등이 있다 (이춘근, 2003: 61).

국가경쟁력을 구성하는 한 부분으로서의 도시는 국가와 민족의 대외개방 창구이며 상품과 서비스의 국제교역 무대로서 전체 국가와 지역의 경쟁력을 결정하는 핵심이다. 국가간, 국제기업 간의 경쟁은 도시단위에서의 경쟁에서 가장 잘 반영되어 나타나고 있다. 그러므로 모든 국가, 지방정부들이 도시경쟁력을 제고해서 국제경쟁 전략에서 우위를 확보하려고 한다. 또한 경제의 세계화와 지역의 일체화는 각국 도시들에게 발전의 기회와 더불어 경쟁의 압력을 가하고 있으며(王行偉·解曉東·吳云娜, 2003), 이런 압력 속에서 ‘도시경영’은 도시행정(市政建設管理)의 새로운 조류로서 시장경제 발전과 정부직능 전환을 요구하고 있다(劉素華·杜鋼建, 2003; 王佃利, 2003).

도시경쟁력은 국가경쟁력을 구성하는 하위 개념으로서 여러 도시들 간의 경쟁을 전제하여 비교우위를 평가하는 것이다. 도시경쟁력은 “특정 도시에 속한 여러 산업들의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게 해 주는 능력”(조동성, 2003: 16), “도시의 경제여건을 개선하고 주민 삶의

질을 지속적으로 향상시키며, 인간개발로 연계시킬 수 있는 능력이 타 도시에 비하여 비교우위가 있는 정도”(삼성경제연구소, 1997)라고 정의할 수 있다.

2. 도시경쟁력에 관한 선행연구 검토

도시경쟁력과 관련한 중국 내 연구를 보면, 라오위엔타오 등은 사회취업, 경제실력, 도시환경은 도시경쟁력의 외재적 표현형식이고, 혁신 및 학습능력, 핵심생산요소, 수요공급조건, 개방정도, 기업경쟁력과 산업경쟁력, 도시운영상관요소(城市運行相關的要素) 등 6개 요소가 도시경쟁력의 영향형식이며, 정부역할(정책제도 등)과 우연요인(돌발성 요인 등)들이 도시경쟁력의 무작위층(隨機層)이 된다고 하였다(廖遠濤·顧朝林, 2003). 또 텡광진 등은 지역 또는 도시산업의 핵심기술능력, 전략기초설비, 위험관리능력, 국제화 요소 등을 도시경쟁력 발전의 중요한 구성요소로 보았다(騰光進 외, 2003).

야펑페이 등은 중국의 47개 도시를 대상으로 하드웨어 경쟁력(硬競爭力)과 소프트웨어 경쟁력(軟競爭力)²⁾이라는 요인을 사용하여 도시경쟁력을 실증 분석하였으며(佺鵬飛 외, 2003), 1997년과 1998년의 통계자료와 전문가와 시민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를 통하여 24개 도시에 대한 경쟁력을 분석한 결과, 상하이, 선전, 광저우(廣州), 베이징 등의 순으로 도시경쟁력 순위를 규정하였다. 또한 상하이시 사

회과학원 도시종합경쟁력비교연구센터(上海市社會科學院城市綜合競爭力比較研究中心)가 1999년 자료를 이용하여 10개 도시에 대한 경쟁력을 분석한 결과에서도 종합경쟁력 순위는 역시 상하이, 선전, 광저우, 베이징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袁瑞娟, 2003).

이 같이 중국 전역을 대상으로 한 연구들과 더불어 장강삼각주 지역 도시들의 경쟁력에 대한 연구(何念如, 2003), 이전의 실크로드와 겹치는 지역인 신아시아·유럽대륙연결경제지대(新亞歐大陸橋經濟帶) 도시들의 경쟁력 연구(沈正平 외, 2002), 난징(南京), 항저우(杭州) 등 특정지역에 대한 경쟁력 연구(徐康宁, 2002) 등이 있다.

또한 도시경쟁력을 결정하는 정치적 요소에 대한 연구도 있다. 예를 들어 성의 수도(省會城市)는 수도라는 특수한 정치적 지위로 인하여 별도의 추가자원을 지원받을 수 있으며, 성급 경제단위에서 성수도가 일반적으로 성급 경제수준의 중심도시가 되는 이유라고 설명한다(仲大軍, 2003).

한수리는 도시경쟁력을 구성하는 중요한 요소 중 하나로 시민들의 종합실력을 중시하고, 도시인구에 대한 통제, 시민소양의 제고 등이 도시경쟁력 향상을 위하여 선행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韓淑麗, 2002). 왕위엔은 2003년 과학소양조사(中國公衆科學素養調查) 결과를 미국, 유럽과 비교하며, 중국 도시가 국제화 목표를 달성하려면 시민들의 과학

2) 도시경쟁력=F(경쟁력, 연경력)=도시산업경쟁력의 종합

경쟁력=인재경쟁력+자본경쟁력+과학기술경쟁력+구조(構造)경쟁력+기초설비경쟁력+위치(位置)경쟁력+환경경쟁력

연경력=문화경쟁력+제도경쟁력+정부관리경쟁력+기업관리경쟁력+개방경쟁력

소양을 제고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王元, 2003). 또한 자오옌윈 등은 도시경쟁력의 발전 과정에서 과학기술단지(科技園區) 역할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趙彥云 외, 2001).

도시경쟁력에 관한 국내 연구로서는 삼성경제연구소(1997)가 경제여건, 삶의 질, 시민의식 등 비교변수를 사용하여, 서울을 포함한 국내도시 6개, 도쿄, 베이징, 상하이, 홍콩을 포함한 아시아 6개 도시, 유럽 7개 도시, 아메리카 3개 도시 등을 대상으로 한 국제도시경쟁력 비교 연구가 있다. 동아시아에서의 도시경쟁력 평가 결과는 도쿄, 홍콩, 서울, 베이징, 상하이의 순이다. 김원배(1997)는 도시경쟁력을 도시의 장기적 생산성 증가를 가능케 하는 역량이라고 정의하고, 이러한 역량의 원천은 도시의 경제적 기반과 투자환경에 근거한 투자역량, 도시의 지적자원과 학습 환경에 기초한 학습 역량, 도시의 물적 자원과 생활환경에 근거한 물적 역량 그리고 도시사회의 통합 및 관리를 수행하는 사회통합관리 역량의 네 가지로 파악하였다. 양병이(1997)는 도시경쟁력의 결정요소로서 삶의 질, 시민의식, 경제여건 등의 3가지 요소를 들고 있다. 동북아 주요도시들의 경쟁력을 비교한 서울시정개발연구원의 연구에 의하면, 통신인프라에 있어서는 한국이 다른 경쟁국가에 비해 앞서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지만, 항공교통을 중심으로 하는 주요도시 접근성에서는 홍콩이나 도쿄, 싱가포르에 비해 뒤쳐졌다. 투자유치를 위한 인센티브 측면에서는 싱가포르와 홍콩의 투자 인센티브가 가장 매력적으로 인식되고 있는 반면에 한국은 최하위이다. 또한 교육환경은 서울이 상하이나 베

이징 보다는 양호하지만, 홍콩, 싱가포르, 도쿄에 비해서는 취약하며, 대기오염도는 상하이와 베이징이 심각한 편이고 서울은 중간 정도이다(장영희·박은철, 2003).

Ⅲ. 분석방법 및 모형

1. 도시경쟁력 평가요인 및 분석 방법

본 연구의 대상 도시는 서울, 베이징, 상하이, 홍콩, 도쿄, 평양 6개 도시이다. 동북아에 위치한 주요 국가의 수도들을 포함시켰으며, 그 외로 각국 수도 못지 않게 국제중심도시로 인정되는 상하이와 홍콩을 추가로 포함시켰다.

도시경쟁력 전략은 그 도시가 처한 상황을 면밀히 분석하고 그에 따른 장점과 특수성을 기반으로 하여 도시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러나 주관적 도시경쟁력을 분석하는 본 연구에서는 구체적 도시자원의 평가는 일단 연구 범위에서 제외하고, 이를 토대로 형성된 도시인식의 포괄적·정성적 분석만을 연구의 분석방법으로 삼는다.

도시경쟁력이란 여러 도시들 간의 경쟁을 전제하여 비교우위를 평가하는 것이므로 경쟁력을 결정하는 요인 선정이 매우 중요하다. 국내외 연구에 나타난 두드러진 공통점은 각 도시의 경쟁력을 경제적 역량과 삶의 질 두 가지로 평가했다는 점이다. 이것은 도시의 경제적 수준이 도시경쟁력을 가늠할 수 있는 중요한 척도가 되며 경제수준이 낮은 도시는 재원이 부족하므로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여력이 없기 때문에 우선 경제력을 갖추는 것이 최

우선이라는 사고에서 나온 것이다. 이러한 사고에서 실시된 사전연구들을 정리하면 <표 1>과 같다.

<표 1> 도시경쟁력 비교 변수활용 현황

구분	비교대상도시		비교변수	
	지역	도시수	주요분야	항목수
Asia Week ('96, 홍콩)	아시아	40	삶의 질	22
CRG ('95, 스위스)	세계	161	삶의 질	42
Fortune ('95, 미국)	세계	62	기업경영환경	20
JBS ('96, 미국)	세계	53	인력부문 기업경영환경	6 6
서울시경제발전연구원 ('96, 한국)	세계	11	기업지원여건 삶의 질	18 8
삼성경제연구소 ('97, 한국)	세계	30	기업경영환경 삶의 질 시민의식	26 33 5
김원배 외 ('97, 한국)	한국		도시투자역량 학습역량 물적역량 사회통합관리역량	

출처 : 최근희(2001: 81)

앞에서 살펴 본 것처럼 이제까지의 연구는 국가 또는 도시의 경제적 측면을 강조한 것이 대부분이었다. 그러나 경제발전으로 인한 여러 가지 사회적, 환경적 문제로 인하여 환경·문화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도시를 구성하는 기업, 사람, 환경, 문화 등을 모두 조화시킬 수 있는 경쟁력의 개념이 필요하다. 실제로 세계은행(World Bank)에서도 살기 좋은 도시의 조건으로 환경문제를 중시하고 있다(삼성경제연구소, 1997: 14). 즉, 도시발전은 인간개발과 경제성장, 환경적·문

화적으로 지속가능한 성장이 같이 움직여야 하며, 이들은 도시경쟁력을 평가하는데 있어서도 긴밀히 연관되어 있다고 본다. 즉, 생활하는 공간, 일하는 공간 등 도시공동체를 구성하는 기본요소 이외에 자연·문화환경은 이러한 도시하부구조와 도시공동체의 가치를 부여하는 정서적 인프라스트럭처라 할 수 있다. 이러한 판단 아래에서 본 연구에서는 도시경쟁력의 구성요인으로 기업을 중심으로 하는 경제여건에 관한 인식, 사람을 중심으로 하는 삶의 질, 시민의식에 관한 인식, 도시의 자연·문화 환경에 대한 인식 등 네 가지 요소로 유형화하였다.

<표 2> 도시경쟁력 구성 요인

구분	경제적여건	삶의 질	시민의식	자연·문화환경
대상	기업	사람	사람	문화·자연
결과	입지	인재유인	사회자본 성장	자연·문화적자산
효과	부가가치 창출	인구성장	사회안정	관광·문화산업 발전

경제적 여건과 관련한 도시경쟁력은 기업입지로 나타나며, 이를 통해 지역고용과 부가가치를 창출한다. 삶의 질·시민의식과 관련한 경쟁력은 인재 유인 및 네트워크와 신뢰를 바탕으로 하는 사회자본의 확충으로 인구성장과 사회 안정화를 도모한다. 자연·문화 환경과 관련한 경쟁력은 자연·문화적 자산과 경관을 이용한 관광객 유치로 관광산업을 중심으로 하는 연관산업의 발전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는 주로 삼성경제연구소(1997)가 사용한 경제여건, 삶의 질, 시민의식 등 구성요인별 구체적 평가항목을 이용하여 대상 도시

들의 도시경쟁력 구성요인에 대한 구체적 평가항목을 다음 <표 3>과 같이 구성하였다.

<표 3> 도시경쟁력 구성요인의 구체적 평가항목

요인	변수	의미	척도
경제 여건	경제수준	전체적인 양적·질적 경제 규모와 경제구조	10점 등간 척도
	기업경영환경	기업비용, 노동력 수준 등 경영환경 수준	
	국제화수준	국제적 위상과 도시의 국제교류 정도	
	도시기반시설	도시내 교통 및 유틸리티 시설	
삶의 질	생활환경	일상생활과 관련한 생활비용, 쾌적성 등	
	교육	교육여건과 교육 투자 규모 등	
	의료복지	의료복지 관련 시설 및 서비스의 규모	
	도시안전	도시내 발생하는 사고 및 재해	
시민 의식	도시여가	도시내의 여가시설 규모와 여가 여건	
	시민의식	준법의식, 환경의식, 소비의식 등 의식 수준	
자연· 문화 환경	문화경관	도시내의 역사·문화적 자산과 도시경관	
	환경의 질	도시환경의 질과 자연환경 자원 등	

도시경쟁력을 구성하는 요인에 대한 변수의 측정은 각 해당 항목에 대해 피조사자가 인식하는 수준 정도를 10점 등간척도(Scale)로 평가하는 방식으로 하였다. 즉, 제시된 명제에 대하여 '매우 높다', '보통이다', '매우 낮다' 등으로 판단하고 각 10점에서 1점까지 점수를 주게 했

으며, 이것을 다시 각 요인별로 점수화하였다.

도시경쟁력 요인에 대한 주관적 인식 조사는 다른 국가, 다른 도시 주민의 조사대상 도시에 대한 느낌이 보다 중요하다고 판단된다. 이런 이유로 본 연구에서는 조사 대상을 중국으로 하였으며 구체적인 대상은 베이징의 대학생들이다. 조사대상의 표본과 관련한 모집단은 중국인민대학, 베이징대학, 청화대학에 재학 중인 학부생, 석사생, 박사생이다. 이 세 대학을 선정한 이유는 3개 대학 모두 중국 최고 수준의 명문대학이므로 이들 학교 졸업생들이 장차 중국사회의 주류 역할을 담당하게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피조사자들을 대상으로 설문지 조사를 통하여 자료를 얻고, 보충이 필요한 부분은 개별 심층 면담을 통하여 보완하였다. 피조사 설문대상의 표본자료 확보 방법으로는 층화표본추출(層化標本抽出 : stratified sampling) 방법을 사용했다. 즉, 학부생, 석사생, 박사생 3개의 하위집단에서 각 200부씩 총 600부의 설문지를 배포하는 非비례층화추출법을 사용했다.³⁾ 설문지 배포 및 회수는 2005년 4월 11일에서 16일까지 총 6일간에 걸쳐서 이루어졌다.

한편 조사대상 모집단인 중국 대학생들에 대해 그들이 속한 사회경제적 환경 차이에 따라 서울에 대한 도시경쟁력 인식과 평가에 어떤 차이가 있는지도 확인하였다. 사회경제적 변수로서는 학력, 성별, 출신지역, 경제수준 등 4가지 변수를 선택하였다. 사회경제변수의 측

3) 층화표본추출 방법은 하위집단에서 추출되는 표본의 수가 하위집단의 크기에 비례하는 비례층화추출법(Proportional stratified sampling)과 그렇지 않은 非비례층화추출법(Disproportional stratified sampling)으로 구분된다(김은정 외, 2002: 130).

정은 각 변수에 해당하는 집단의 측정대상을 상호 배타적인 하위집단으로 분류하는 명목척도(Nominal Scale)로 구성하여 각 하위집단의 서울에 대한 도시경쟁력 평가 수준을 측정하였다.⁴⁾

도시경쟁력은 경제여건, 삶의 질, 시민의식, 자연·문화환경 등 4가지 요인의 종합으로 결정된다고 보지만, 각 요인 간에는 상대적인 중요성에서 차이가 있을 것이다. 따라서 각 요인들의 상대적 중요성을 확인하고 가중치를 주기 위하여 베이징에 위치한 도시 관련 전문연구기관과 대학내 관련분야 교수들을 대상으로 상술한 4개 요인들 간의 상대적 중요성에 대한 의견을 조사하고 그 결과를 반영하였다.⁵⁾

2. 표본, 가중치 구성 및 요인별 신뢰도 분석

수집된 설문지 중 유효설문지 수와 회수율을 보면 학부생 149부(74.50%), 석사생 165부(82.50%), 박사생 147부(73.50%)로 총 461부(76.83%)의 유효설문지가 회수되었다.⁶⁾ 회수된 표본의 구성은 <표 4>와 같다.

전문가들의 의견을 종합한 도시경쟁력을 구성하는 요인별 가중치는 <표 5>와 같다. 조사결과 중국의 전문가들은 도시경쟁력을 구성하는 요인들 중에서 경제여건이 가장 중요하다고 인식하고 있으며, 그 다음으로 삶의 질, 자

연·문화환경, 시민의식의 순으로 중요하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표 4> 표본집단 구성

변수	집단	빈도	비율	누적비율
학력	학부생	149	32.32	32.32
	석사생	165	35.79	68.11
	박사생	147	31.88	100.00
성별	남	207	44.90	44.90
	여	254	55.09	100.00
출신지역	도시	289	62.68	62.68
	농촌	172	37.31	100.00
경제수준	상	22	4.77	4.77
	중	350	75.92	80.69
	하	89	19.30	100.00

<표 5> 가중치의 구성과 평균

요인	경제여건	삶의 질	시민의식	자연·문화환경	합계
가중치평균	36.33	23.43	18.06	22.16	100.00
표준편차	10.82	7.73	7.43	7.45	

본 연구에서는 중국대학생들의 주관적 평가를 이용한 동북아 주요 도시의 경쟁력을 평가하기 위하여 경제여건 등 4개 요인을 상정하였다. 가정한 요인들에 대한 인식 수준을 측정하기 위하여 시민의식의 경우에는 1개 변수로 구성하였고 경제여건과 삶의 질, 자연·문화환경은 2~5개의 변수들을 가지고 구성하였다. 시민의식을 제외한 경제여건, 삶의 질, 자연·문

4) 서울의 도시경쟁력과 사회경제변수의 차이에 따른 영향관계를 통계적으로 분석하기 위하여 SPSS 11.0 통계패키지를 사용하였다. 통계분석 기법으로는 빈도분석, T-TEST 분석, 분산분석 등을 이용하였다. 검증의 유의수준은 P<0.05 수준으로 정하고 이에 따라 분석 결과를 해석한다.
 5) 가중치 설정을 위한 설문대상의 구성은 중국인민대학 11명, 중국과학원 8명, 중국사회과학원 6명, 베이징도시대학(北京城市學院) 3명, 중국과학기술부 2명 등으로 총 30명이다. 조사기간은 2005년 4월 12일에서 21일까지 총 10일간에 걸쳐서 이루어졌다.
 6) 중국인민대학에서 274부(59.43%), 베이징대학에서 112부(24.29%), 청화대학에서 75부(16.26%)의 유효설문지를 회수하였다.

화환경 요인은 여러 문항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각 요인에 대한 설문항목의 내적 일관성을 측정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 크론바하 알파(Cronbaha's alpha) 계수를 이용하여 신뢰성을 측정한다. 본 연구에서는 사용한 문항의 수가 적고 기준에 중국에서 적용한 적이 없기 때문에 크론바하 α 계수가 0.6 이상이면 신뢰성이 있다고 가정한다.⁷⁾ 신뢰도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표 6> 요인별 설문항목 신뢰도 분석

구분	요 인	문항수	Alpha	표준화 Alpha	F	prob.
도시 경쟁력	경제여건	4	0.88	0.88	16.68	0.00
	삶의 질	5	0.85	0.86	23.54	0.00
	자연문화 환경	2	0.60	0.61	9.79	0.00

신뢰도 분석 결과, 각 요인별 신뢰성 계수는 모두 크론바하 알파계수가 0.6 이상이고 표준화된 각 요인들의 알파값도 0.6 이상이므로 신뢰성이 있다고 판단한다. 본 연구에서는 모든 요인에 대해서 원래 계획했던 항목들을 그대로 이용하여 각 요인에 대한 도시경쟁력을 평가한다.

IV. 동북아 주요도시들의 경쟁력 비교분석

1. 도시경쟁력 인식 단순비교

10점을 최고 수준으로 한 경제여건에 대한

각 도시들 간의 인식 정도를 보면 경제수준의 경우, 홍콩(8.71)이 수위를 차지하고 있고 다음으로 도쿄(8.44), 상하이(8.41)의 순이다. 서울(8.05)은 4위로 도시의 전체적인 양적·질적 경제규모와 경제수준이 인식되고 있다. 기업경영 환경은 홍콩(8.60), 상하이(8.38), 도쿄(7.89), 서울(7.85) 순으로 도시에서 기업이 경영활동을 하는 데 고려되는 경영환경 수준이 높은 도시로 인식되고 있다. 국제화수준에서는 홍콩(8.99), 상하이(8.71), 도쿄(8.53), 서울(8.16) 순으로 국제적 위상과 국제적 개방성 정도가 높은 도시라는 인식을 보여주고 있다. 도시기반시설에 대한 인식에서는 홍콩(8.44), 도쿄(8.31), 상하이(8.11), 서울(7.98) 순으로 도시 내 사회기반시설이 잘 갖추어진 도시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홍콩이 경제여건의 모든 변수에서 가장 높은 인식 수준을 보이고 있으며, 이는 도시경쟁력을 구성하는 요인 중에서 경제여건의 상대적 중요성이 높은 것에 비추어 볼 때 도시경쟁력의 종합 순위에서도 높은 수준으로 인식될 것으로 보여진다.

경제여건에 대한 종합적 인식 수준에서는 홍콩(8.68)이 1위로 인식되고 있고, 상하이(8.40), 도쿄(8.29), 서울(8.01), 베이징(7.63), 평양(4.22)의 순으로 해당 도시에 있어서 기업 경영활동의 용이성 수준이 높게 평가되고 있다.⁸⁾

7) 크론바하 α 계수의 값은 0에서 1의 범위 값을 갖는다. α 계수는 탐색적 조사의 경우는 0.5 내지 0.6 이상의 값이, 기초조사의 경우는 0.8 이상의 값이면 신뢰도가 높다고 말할 수 있다(김은정 외, 2002: 227).

8) 해당 변수에 대한 6개 도시 전체의 평균에 대해서 각 도시의 평균값들 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ANOVA 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 각 변수에 대한 6개 도시들의 평균값들이 유의수준(P<0.05) 안에서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고 있었다. 이러한 현상은 <표 8>, <표 9>, <표 10>, <표 11>, <표 12>에 모두 해당한다.

〈표 7〉 도시별 경제여건 변수별 인식수준

변 수	도 시		서 울		베이징		상하이	
	평균	표준 편차	평균	표준 편차	평균	표준 편차	평균	표준 편차
경제수준	8.05	1.37	7.71	1.33	8.41	1.27		
기업경영환경	7.85	1.42	7.43	1.47	8.38	1.27		
국제화수준	8.16	1.36	7.96	1.49	8.71	1.27		
도시기반시설	7.98	1.39	7.44	1.59	8.11	1.35		
경제여건종합	8.01	1.23	7.63	1.27	8.40	1.12		
변 수	도 시		홍 콩		도 교		평 양	
	평균	표준 편차	평균	표준 편차	평균	표준 편차	평균	표준 편차
경제수준	8.71	1.21	8.44	1.61	4.15	2.07		
기업경영환경	8.60	1.36	7.89	1.79	4.21	2.09		
국제화수준	8.99	1.36	8.53	1.68	4.08	2.22		
도시기반시설	8.44	1.44	8.31	1.60	4.46	2.11		
경제여건종합	8.68	1.17	8.29	1.48	4.22	1.98		

삶의 질에 대한 각 도시들 간의 인식 정도를 보면 생활환경의 경우, 서울(7.75)이 수위를 차지하고 있고 다음은 홍콩(7.68)으로 도시민의 일상생활 활동과 관련한 생활비용, 쾌적성 등의 생활환경에 대한 인식이 높게 나타나고 있다. 심층면담을 통한 조사에 의하면, 이러한 결과는 서울이 홍콩이나 도쿄에 비해서 물가수준이 상대적으로 낮게 인식되고 있고, 최근 들어 한류(韓流) 등 문화산업의 영향으로 빠른 속도로 서울이 다른 도시에 비해 상대적으로 많이 익숙해지고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교육에 대한 인식 수준은 베이징(8.29), 홍콩(8.13), 상하이(7.97), 서울(7.92) 순으로 교육여건이 좋은 도시로 인식되고 있다. 베이징이 교육에 대한 인식에서 1위로 나타나는 것은 중국 대륙에서 치열한 경쟁을 통해 베이징에서도 가장 높은 수준의 대학에 재학 중인 학생들이 피조사 대상이기 때문에 이런 현실에 대한 자부심

이 강하게 작용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판단된다. 의료복지에 대한 인식에서는 홍콩(8.02), 서울(7.79)의 순으로 의료관련시설 및 서비스의 규모와 사회복지 수준이 높게 인식되고 있다. 의료복지에 있어 베이징과 상하이가 상대적으로 낮게 평가되고 있는 것은 개혁개방 이후 진행되고 있는 일련의 사회복지정책 해체에 대한 인상에 기인한다고 본다. 도시안전에 있어서는 상하이(7.81), 베이징(7.75), 서울(7.53)의 순으로 도시에서 발생하는 사고 및 사건에 따른 도시안전 수준이 높은 도시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상하이와 베이징이 도시안전에 있어 높은 평가수준을 보이는 이유는 사회주의 정치체제에 대한 교육과 자본주의 사회에 대한 부정적 인상이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영화에서 대표적으로 보여지는 폭력성이 홍콩에 대한 인식에 있어서도 일정정도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도시여가에 대한 인식에서는 홍콩(8.61), 상하이(8.28), 서울(8.07)의 순으로 도시내 여가시설 규모와 시설이 잘 정비된 도시로 인식되고 있다. 상대적으로 세련된 도시이미지와 쇼핑에 대한 편리성 등에서 홍콩과 상하이가 높은 점수를 받았다고 판단된다.

삶의 질에 대한 종합적 인식수준에서는 홍콩(7.98)이 1위로 인식되고 있고, 상하이(7.83), 서울(7.81), 베이징(7.61), 도쿄(7.47), 평양(5.18)의 순으로 해당 도시민의 생활수준이 평가되고 있다. 도쿄가 상대적으로 낮게 평가되고 있는 것이 특이하며, 이는 높은 물가수준 특히 높은 부동산가격에 대한 인식이 다른 변수들에 대한 평가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치

고 있어 도쿄의 삶의 질을 전체적으로 낮게 평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표 8〉 도시별 삶의 질 변수별 인식수준

변 수	도 시		서 울		베이징		상하이	
	평균	표준 편차	평균	표준 편차	평균	표준 편차	평균	표준 편차
생활환경	7.75	1.51	6.96	1.73	7.61	1.58		
교 육	7.92	1.38	8.29	1.49	7.97	1.42		
의료복지	7.79	1.45	7.22	1.70	7.48	1.54		
도시안전	7.53	1.63	7.75	1.76	7.81	1.55		
도시여가	8.07	1.57	7.85	1.55	8.28	1.35		
삶의질종합	7.81	1.29	7.61	1.32	7.83	1.21		
변 수	도 시		홍 콩		도쿄		평 양	
	평균	표준 편차	평균	표준 편차	평균	표준 편차	평균	표준 편차
생활환경	7.68	1.69	7.06	1.98	4.86	2.24		
교 육	8.13	1.41	7.86	1.89	5.12	2.27		
의료복지	8.02	1.51	7.70	1.77	5.29	2.36		
도시안전	7.51	1.59	6.80	2.10	6.13	2.54		
도시여가	8.61	1.51	7.93	1.90	4.51	2.30		
삶의질종합	7.98	1.25	7.47	1.56	5.18	1.92		

시민의식에 대한 각 도시들 간의 인식 평가 정도를 보면 홍콩(7.97)에 이어 서울(7.93)이 2위로 도시민의 의식수준이 높게 인식되고 있다. 서울의 시민의식 수준이 높게 나타나는 것은 한국영화나 드라마 상에 비쳐지는 한국인들의 예절의식에 대하여 좋은 인상을 받은 것으로 판단된다.

홍콩과 서울 다음으로 베이징(7.59), 상하이(7.46), 도쿄(7.01), 평양(5.81) 순이다. 도쿄가 상대적으로 낮게 평가되고 있는 것은 일본제국주의의 중국침략 역사와 최근의 역사교과서 문제 등 과거역사 처리문제에 대한 중국 국민들의 일본에 대한 민족적 감정이 작용하고 있

는 결과라고 판단되며, 상하이가 베이징 보다 낮게 인식되는 것은 남방과 북방사람들의 성격차이에 대한 중국에서의 지역감정과 연관이 있다고 판단된다.

〈표 9〉 도시별 시민의식 인식수준

변 수	도 시		서 울		베이징		상하이	
	평균	표준 편차	평균	표준 편차	평균	표준 편차	평균	표준 편차
시민의식	7.93	1.59	7.59	1.69	7.46	1.67		
변 수	도 시		홍 콩		도쿄		평 양	
	평균	표준 편차	평균	표준 편차	평균	표준 편차	평균	표준 편차
시민의식	7.97	1.47	7.01	2.25	5.81	2.32		

자연·문화환경에 대한 인식 정도를 보면 경관의 경우 베이징(8.24)이 1위를 차지하고 있고 다음으로 홍콩(7.86), 상하이(7.83), 서울(7.61) 순이다. 베이징이 문화경관에 있어 가장 높은 평가수준을 보이는 이유는 베이징에 중국 문화가 가장 집약적으로 축적되어 있으므로 베이징이 보유하고 있는 역사적·문화적 경관에 대한 인상이 전체적 도시경관에 대한 평가에서도 영향을 미쳐 이런 결과를 보여준다고 판단된다. 환경의 질에 대한 인식에 있어서는 서울(7.40)이 1위라는 점이 주목되며, 이는 베이징과 상하이가 대기오염 등 환경오염 수준에 있어 열세에 있는 현실과 기후 등 자연환경에 대한 종합한 인식에 근거한다고 판단된다.

자연·문화환경에 대한 종합적 인식수준에서는 홍콩(7.51)이 1위로 인식되고 있고, 서울(7.50), 상하이(7.39), 베이징(7.17), 도쿄(7.02), 평양(6.01) 순으로 해당 도시의 자연·문화환경 수준이 평가되고 있다.

〈표 10〉 도시별 자연·문화환경 변수별 인식수준

변 수	도 시		서 울		베이징		상하이	
	평균	표준 편차	평균	표준 편차	평균	표준 편차	평균	표준 편차
도시안전	7.61	1.70	8.24	1.67	7.83	1.54		
도시여가	7.40	1.65	6.12	1.98	6.97	1.73		
삶의질종합	7.50	1.51	7.17	1.55	7.39	1.45		
변 수	도 시		홍 콩		도 쿄		평 양	
	평균	표준 편차	평균	표준 편차	평균	표준 편차	평균	표준 편차
도시안전	7.86	1.64	7.25	1.99	5.61	2.29		
도시여가	7.16	1.84	6.80	1.88	6.43	2.29		
삶의질종합	7.51	1.57	7.02	1.75	6.01	2.05		

2. 도시경쟁력 인식 가중비교

상술한 변수들에 대한 주관적 평가 결과에 중국내 전문가들의 도시경쟁력 구성요인들 간의 가중치(〈표 5〉 참조)를 적용하여 동북아 주요 도시들의 도시경쟁력을 검토한 결과 경제여건에 대한 인식에서는 홍콩(31.55), 상하이(30.53), 도쿄(30.12), 서울(29.10) 순으로 나타났다. 삶의 질에 있어서는 홍콩(18.71), 상하이(18.34), 서울(18.30) 순이며, 시민의식에서는 홍콩(14.39), 서울(14.32) 순으로 경쟁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자연·문화환경에서는 서울(16.63)이 홍콩(16.64)과 함께 가장 높은 점수를 받았다.

도시경쟁력을 구성하는 요인들 간에 가중치를 적용하여 100점 만점으로 평가한 동북아 주요 도시들 간의 주관적 인식에 의한 도시경쟁력의 종합평점은 홍콩(81.31), 상하이(78.75), 서울(78.38), 도쿄(75.86), 베이징(75.20), 평양(51.30) 순으로 나타났다.

〈표 11〉 도시경쟁력 요인별 가중 분석

변 수	도 시		서 울		베이징		상하이	
	평균	표준 편차	평균	표준 편차	평균	표준 편차	평균	표준 편차
경제여건	29.10	4.19	27.74	4.61	30.53	4.08		
삶의 질	18.30	3.02	17.83	3.10	18.34	2.84		
시민의식	14.32	2.88	13.71	3.06	13.47	3.03		
자연·문화환경	16.63	3.35	15.90	3.44	16.39	3.21		
변 수	도 시		홍 콩		도 쿄		평 양	
	평균	표준 편차	평균	표준 편차	평균	표준 편차	평균	표준 편차
경제여건	31.55	4.27	30.12	5.39	15.34	7.19		
삶의 질	18.71	2.93	17.50	3.66	12.14	4.52		
시민의식	14.39	2.65	12.65	4.07	10.48	4.19		
자연·문화환경	16.64	3.48	15.57	3.87	13.33	4.54		

〈표 12〉 주요도시별 도시경쟁력 인식 순위

변 수	도 시		서 울		베이징		상하이	
	평균	표준 편차	평균	표준 편차	평균	표준 편차	평균	표준 편차
경쟁력종합	78.38	12.02	75.20	12.43	78.75	10.91		
경쟁력순위	3		5		2			
변 수	도 시		홍 콩		도 쿄		평 양	
	평균	표준 편차	평균	표준 편차	평균	표준 편차	평균	표준 편차
경쟁력종합	81.31	11.25	75.86	14.52	51.30	17.38		
경쟁력순위	1		4		6			

3. 사회경제변수별 서울의 도시경쟁력 인식수준 분석

서울에 대한 도시경쟁력이 조사대상자인 중국대학생의 사회경제변수의 집단간 차이에 따라 어떤 차이를 보이는지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 사회경제변수 중에서 성별, 출신지역 변수는 모두 2개의 하위집단으로 구분될 수 있다. 성별, 출신지역에 따른 서울에 대한 도시경쟁력의 집단간 인식 차이 분석 결과는 〈표 13〉과 같다.

<표 13> 서울 도시경쟁력과 사회경제변수 간의 T-검정

변수	집단	서울의 종합도시경쟁력					
		평균	표준편차	F	Sig.	T	Sig (2-tailed)
성별	남	77.48	12.28	0.34	0.55	-1.45	0.14
	여	79.11	11.78				
출신 지역	도시	78.19	12.51	2.83	0.09	-0.43	0.66
	농촌	78.69	11.18				

중국의 대학생들이 인식하는 서울의 도시경쟁력과 조사대상자들의 사회경제변수별 집단 간 t-검정 분석 결과를 보면, 성별, 출신지역에 따른 서울의 도시경쟁력에 대한 인식 수준에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고 있지 않는 것을 알 수 있다. 즉, 성별과 출신지역의 차이는 서울의 도시경쟁력에 대한 인식수준에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이와 더불어 본 연구에서 사용한 사회경제변수 중에서 학력, 경제수준 변수는 모두 3개의 하위집단으로 구성되어 있다. 서울 도시경쟁력 인식 수준이 학력, 경제수준에서의 집단 간 차이에 따라 어떠한 양상을 보이는지 분석한 F-검정 분석 결과는 <표 14>와 같다.

<표 14> 서울 도시경쟁력과 사회경제변수 간의 분산분석

변수	집 단	서울의 종합도시경쟁력			
		평 균	표준편차	F	Sig.
학력	학부생	82.11	11.02	12.06	0.00
	석사생	77.45	11.39		
	박사생	75.63	12.78		
경제수준	상	80.63	16.19	0.65	0.52
	중	78.47	11.64		
	하	77.46	12.36		

학력과 경제수준의 차이에 따른 서울의 도

시경쟁력에 대한 인식수준 차이분석에서는 학력에 따라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즉, 학부생, 석사생, 박사생 간에 서울 도시경쟁력에 대한 인식수준의 평균에 차이가 인정되고 있다. 그러나 경제수준에 따른 집단간 차이는 서울의 도시경쟁력에 대한 인식수준에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력에 따른 서울의 도시경쟁력에 대한 인식수준의 차이에 대해 Scheffe의 방식에 따라 사후검정을 한 결과를 보면 학부생이 석사생과 박사생에 비해 서울의 도시경쟁력을 더욱 높게 평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결과는 한류의 영향이 가장 중요한 배경 원인인 것으로 분석되며, 한류의 영향은 연령대에 따라 다르게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문화흡수력이 더욱 빠르리라 생각되는 학부생이 석사생이나 박사생에 비해 한류에 더욱 친밀하며 이런 경향이 바로 서울의 도시경쟁력을 인식하는 부분에서도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앞으로 한류의 영향이 계속해서 작용한다면 이와 동반하여 서울의 도시경쟁력에 대한 주관적 인식도 같이 상승할 수 있을 것이라 판단된다. 또한 앞으로 서울에 대한 인식이 더욱 나아질 것이란 추론도 가능하다.

V. 결론

본 연구는 중국의 수도 베이징 소재 명문대학에 재학중인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동북아 주요 대도시들의 도시경쟁력에 대한 주관적 인식과 평가를 경제여건, 삶의 질, 시민의식,

자연·문화환경에 대한 인식을 통하여 분석하였다.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서울의 점수와 순위다. 서울의 이미지가 '한국'이라는 국가 이미지로 연결되고, 향후 투자자 및 소비자로서 중국인들의 선택행위에서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가능성 때문이다.

본 연구를 통해서 밝혀진 주요 분석 결과와 함의를 종합해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객관적 지표에서 도쿄에 비해 열세를 보이는 서울이 주관적 평가에서는 도쿄를 앞서고 있는 현상은 이번 연구의 의의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부분이라고 할 수 있다. 즉, 도시 경쟁력을 결정하는 요인은 순수한 객관적 지표에만 한정된다고 할 수 없으며, 주관적이고 개인적 인식과 판단도 중요하게 작용한다는 사실을 확인하였다. 이 같은 주관적 인식과 판단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개인적 정서와 감정에 대한 올바른 이해는 도시마케팅 전략을 수립하는 데 매우 유용한 함의를 줄 수 있을 것이다.

둘째, 중국 대학생들의 서울에 대한 인상과 판단에 '한류(韓流)'가 끼친 영향이다. 설문조사와 면담과정에서 중국의 젊은 대학생들에 대한 한류의 영향을 확인할 수 있었다. 중국에서 한류가 아직까지는 문화산업 측면에서 일정한 의미를 가질 정도까지는 도달하지 못했다고 할지라도 서울에 대한 인식과 이미지 형성에 매우 중요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한류를 서울의 독특한 도시이미지를 홍보하기 위한 문화축제 등 이벤트 상품 개발과 연결시키는 전략이 필요하다.

셋째, 중국 대학생들의 베이징에 대한 평가

를 통해서 중국 젊은 엘리트 계층의 자국에 대한 평가와 인상을 유추해 볼 수 있다. 즉, 베이징에 대한 평가가 대체로 낮게 나오는 이유는 이들 젊은 대학생들이 인식하는 중국과 수도 베이징의 위상을 반영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한편, 이들의 베이징에 대한 이해가 다른 도시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기 때문에 베이징에 대해 더욱 비판적으로 평가한 결과라고 할 수도 있다. 이와 더불어 홍콩 영화가 홍콩의 이미지에 주고 있는 영향이다. 여타 분야에서는 대부분 최고의 점수를 받은 홍콩이 도시안전에 있어서는 상하이, 베이징, 서울 보다 점수가 낮은 이유는 홍콩영화에서 두드러지는 폭력성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판단된다. 이는 '한류'의 덕을 보고 있는 서울의 경우와 대비된다.

넷째, 도쿄에 대한 저평가의 원인이다. 객관적 지표를 이용한 평가에서 홍콩과 함께 수위를 차지하는 도쿄의 경쟁력이 중국 대학생들의 인식을 통한 평가에서는 낮게 나오는 이유는 과거사에 대한 일본인들의 태도에 기인하는 감정적 요인이 작용하였기 때문이라고 판단된다.

중국 대학생들의 서울에 대한 주관적 평가 결과는 객관적 지표를 통해 확인되는 서울의 상대적 위상보다 대체로 높게 나오고 있다. 이 같은 결과는 역사적으로나 현실적으로 양국 국민과 민족 간에 부정적 인상보다는 긍정적 인상이 더 많았고, 최근에는 88년 서울올림픽과 2002년 월드컵 개최같은 국제적 이벤트 행사 그리고 중국내 유명대학마다 전체 외국인 유학생수의 60~70%를 점하는 한국유학생들과의 접촉 경험, '한류'를 타고 전파된 영화,

TV연속극, 대중가요 등 문화적인 영향을 받은 결과라고 판단된다. 이러한 상황은 서울을 비롯한 국내 도시들이 도시마케팅 전략을 추진해 나가는 데 매우 좋은 기초 조건이 될 것이다. 문제는 이 같이 좋은 조건과 잠재력을 어떻게 강화하고 활용해 나갈 것인가다.

본 연구에서는 도시경쟁력을 주관적 인식을 토대로 분석하여 그 결과를 산출하였다. 정성적인 도시경쟁력 지수는 일반적으로 정량적 지표가 부족한 경우 보완적으로 사용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주관적 평가에 의존한 것은 논리적 설명에 한계를 갖는다. 그러므로 향후 연구에서는 주관적 인식에 나타난 도시의 요인별 경쟁력을 설명해 줄 수 있는 설문을 통해 더욱 심화된 원인 분석이 있어야 하겠고, 정성적 지표와 더불어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지표를 통합적으로 사용하여 포괄적인 도시경쟁력 평가가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김선기, 2003, “장소관측용 지역정보시스템의 평가와 정책 제언”, 『지방행정연구』, 17(3): 303~332.
 김원배, 1997, 『지방대도시 경쟁력 강화 방안』, 국토연구원.
 김은정·박양규·박중재, 2002, 『SPSS 통계분석 10』, 21세기사.
 김현호, 2003, “장소관측적 지역발전을 위한 장소자산형성에 관한 연구”, 『국토연구』, 36: 77~95.
 김호정, 1996, 『사회과학통계분석』, 삼영사.
 삼성경제연구소, 1997, 『세계도시경쟁력비교』.
 양병이, 1997, “도시경쟁력과 도시 삶의 질”, 『도시문제』, 347: 54~64.
 양준희(역), 2005, 『브랜드의 미래, 리브마크』, 서들, 서울 (Kevin Roberts, 2004, *Lovemarks, the future beyond brands*, PowerHouse)
 이춘근, 2003, 『중국의 10·5 과학기술계획연구』, 과학기술

정책연구원.
 장영희·박은철, 2003, “동북아 중심도시로서의 서울의 경쟁력 : 서울, 상하이, 베이징, 홍콩, 동경, 싱가포르의 비교”, 『서울경제브리프』, 20: 1~24.
 조동성, 2003, “국가경쟁력 제고를 위한 기본 정책방향”, 이용기 외 편집, 『경제구조개혁과 국가경쟁력』, 나남, 15~57.
 최근희, 2001, “우리나라 6대 도시의 도시경쟁력에 관한 연구”, 『도시행정연구』, 16: 75~95.
 廖遠濤·顧朝林, 2003, “關於城市競爭力評價模型的設想”, 『規劃師』, 9: 38~41.
 徐康宇, 2002, “南京与杭州城市競爭力比較研究”, 『南京社會科學』, 增刊: 5~9.
 王元, 2003, “高技術產業發展与城市發展戰略”, 『特區理論与實踐』, 10: 26~29.
 王佃利, 2003, “‘經營城市’的新理念及風險回避”, 『中國行政管理』, 2: 44~50.
 王行偉·解曉東·吳云娜, 2003, “城市競爭力問題研究綜述”, 『党政干部學刊』, 7: 21~22.
 袁瑞娟, 2003, “中國城市競爭力問題研究綜述”, 『經濟學動態』, 1: 48~50.
 仲大軍, 2003, “中國城市競爭力主要表現在哪里?—兼論兩種發展模式在中國的冲突”, 『開放導報』, 8: 5~8.
 仝鵬飛·劉高軍·宋璇濤, 2003, “中國城市競爭力聚類分析”, 『中國工業經濟』, 7: 34~39.
 劉素華·杜鋼建, 2003, “切實推進行政管理体制改革 : 新一輪政府机构改革的背景和特点”, 『中國党政干部論壇』, 4: 11~20.
 沈正平·馬曉冬·戴先杰·翟仁祥, 2002, “中國新亞歐大陸橋經濟帶城市競爭力比較研究”, 『經濟地理』, 1: 32~36.
 何念如, 2003, “長江三角洲城市競爭力的研究”, 『南京經濟學院學報』, 3: 42~45.
 騰光進·區和堅·劉興政, 2003, “香港產業結構演變与城市競爭力發展研究”, 『中國軟科學』, 12: 120~125.
 趙彥云·申曉玲·楊宏亮·姜万軍, 2001, “中關村科技園區國際競爭力研究”, 『中國特色社會主義研究』, 2: 25~32.
 韓淑麗, 2002, “城市競爭力的着力点”, 『財經問題研究』, 12: 51~53.
 Hong, S. T. and Wyer, R. S., 1989, “Effect of Country-

of-Origin and Product-Attribute Information Processing Perspective”, *Journal of Consumer Research*, 16(September): 175~187.

원 고 접 수 일 : 2005년 7월 18일

1차심사완료일 : 2005년 8월 24일

최종원고채택일 : 2005년 11월 3일